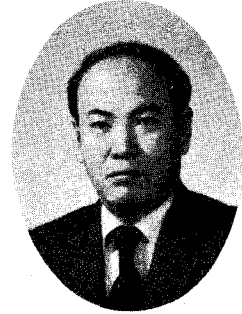


단백질원료의 과부족 원인과 대책

유 동 준
(단미사료협회 전무이사)



단백질 원료의 과부족 원인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달리면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공급에 비하여 수요가 적으면 재고가 늘어 체화 현상이 일어나게 됨은 보편타당한 경제학의 교과서 얘기다. 아울러 단백질 원료의 과부족의 커다란 원인 또한 수요와 공급의 안정화가 이룩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가. 유통중인 단백질사료의 현황을 풀이하고 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함수 관계에서

다. 배합사료 생산량중 양계사료와의 관계 라. 어획상황에 따른 어분, 식용유 소비추세에 따른 대두박 생산의 변동 마. 기타요인이 단백질 사료에 미치는 영향등 위와 같은 측면에서 간단한 상황을 나열함으로써 단백질사료 과부족 발생원인을 찾아보려 한다.

가. 유통중인 단백질사료 현황

단백질사료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로 구분하며 동물성 단백질은 어분을 중심하여 육분, 육골분, 우모분, 어즙흡착사료, 피혁분, 잠용박, 제각분, 혈분 등이 있으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것은 주로

어분과 육분, 육골분, 우모분, 어즙흡착사료 외에 극히 소량의 잠용분이 생산 유통되고 있으며, 식물성 단백질은 대두박, 채종박, 호박, 임자박, 먼실박, 아마박, 밀구르덴, 옥수수배아박, 주정박, 맥주박 등이 있으나 주로 대두박, 채종박, 호박, 임자박 외에 극히 소량의 옥수수구르덴, 옥수수배아박, 주정박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료관리법에 의하여 성분등록을 하고 생산유통중인 단백질 사료는 표 1과 같다.

나.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함수 관계

어분이 동물성 단백질 사료의 대표적인 품목인데 반하여 대두박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적인 품목이다. 어분과 대두박의 상품을 기준하였을 때 조단백질 수준이 대략 1.5배 차로 어분이 높다.

어분과 대두박은 어떤 면에서는 상호 보충적인 역할을 하나 일면 상호 경쟁적인 요소 또한 내재되어 있음은 생산자나 구매자에게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첫째, 조단백질 수준에 의한 단백질 %당 가격이 어느쪽이 싸가에 따라 구매자는 어분과 대두박 중에서 택일한다.

이때 대두박 쪽에 많이 쏠리면 어분 체화현

(표 1) 단미사료의 성분량한도

사 료 의 종 류		성분량의최소량 (%)			성분량의 최대량 (%)						기 타	
		조단 백질	칼슘	인	구분	저섬유	조회분	조지방	염분	불소		크롬
동물성 단백질 (11종)	(1)어 분(상품)	60.0			10.0		20.0		3		0.01	
	(2)어 분(중품)	50.0			12.0		28.0		4		0.01	
	(3)어 분(하품)	40.0			14.0		31.0		5		0.01	
	(4)어즙흡착사로	30.0			12.0			15.0				
	(5)우모분(상품)	74.0					5.0				0.05	
	(6)우모분(하품)	70.0					10.0				0.05	
	(7)육 분(상품)	68.0			14.0		10.0				0.01	
	(8)육 분(하품)	60.0			14.0		15.0				0.01	
	(9)육골분(상품)	48.0	11.0	6.0			32.0				0.01	
	(10)육골분(하품)	26.0	18.0	8.0			50.0				0.01	
	(11)피혁가공분말사료	60.0			10.0	6.0					2.75	
식물성단 백질(2종)	(12)대두박(상품)	44.0			13.0	7.0	6.5					
	(13)대두박(하품)	40.0			13.0	9.0	7.0					

펠릿소화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상이 일어난다.

둘째, 어분보다 대두박을 즐겨쓰는 구매자의 경우 대두박 사정이 좋지 않으면 불시에 어분으로 손을 내민다.

이때에는 고정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한 공급 체계는 고정 구매처를 갖고 있지 않던 구매자로부터 어분이 부족하다는 소리가 오게 된다.

셋째, 강피류 사정에 따라 어분 상, 중, 하품의 유통 사정이 달라진다.

강피류 사정이 좋으면 상품 어분을 주로 구매하고 강피류 사정이 악화되면 중, 하품 어분만을 구매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식물성 단백질인 대두박 경우와 달리 동물성 단백질 어분의 경우는 생물을 처리하는 관계로 일시에 많은 원료를 비축하고 생산할 수 있는 사정이 못된다. 다른 표현을 한다면 어분의 경우 적극적인 생산체제가 아닌 소극적인 생산체제라 하겠는데, 고정 거래처를 갖고 있는 어분공장사의 경우 거래처로부터 그달 그달의 주문량 및 주문 예상량에 맞추어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있으며, 고정거래처가 없는 어분공

장의 경우 수시 거래일망정 매월 판매 예상량을 감해 생산하고 있음이 보편적인 현상이라 필자는 굳이 이와 같은 생산 체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소극적인 생산 체제라 일컬어 오고 있다.

다. 배합사료 생산량중 양계사료와의 관계

배합사료가 아무리 많이 생산되어도 양계용이 아닌 배합사료의 경우 어분의 사용 비율이 낮아 수급의 과부족과 관련이 없으나 양계사료의 생산량이 늘어나면 일차적으로 어분 사용량이 늘어나 어분 수요가 증대되며, 양계사료가 줄어들면 어분 사용량이 줄어들어 어분 체화현상이 빚어지는 동시에 어분값의 하락세가 민감하게 온다. 시장이 극히 제한된 상황이라 덩핑(투매) 현상이 유발됨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경우 대두박마저 체화 현상을 빚게 된다면 어분공장 사정은 초상집 풍경이다.

한마디로 식물성 단백질에 비하여 동물성 단백질사료는 사용 분야가 양계사료가 주가 되며, 양돈사료에 일부 사용될 뿐으로 그 사



용의 폭이 좁은 편이다. 그러나 대체로 배합 사료 총생산량의 3%를 기준하여 동물성 단백질의 사용량을 계산하고 있으나 실제 사용량은 3%이하가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다.

라. 어획상황과 식용유 소비와의 관계

어획 사정이 좋고 식용유 소비가 늘어날 경우 어분과 대두박 생산 또한 일차적으로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

어분의 경우 생물을 처리하므로 생물을 오래 보관할 수 없어 성어기엔 거의가 야간작업을 하는 실정이라 수요에 비하여 공급 과잉 상태이며, 흥어기인 경우엔 고정 거래처만을 대상으로 생산 체계를 갖는다.

대두박 또한 식용유의 소비 추세에 따라 공급 상황이 달라진다. 특히 계절적으로 식용유의 소비가 둔화될 때엔 어쩔 수 없이 대두박 생산이 저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대두박을 생산하기 위한 식용유 생산이 아니라 식용유 생산을 위한 부산물이 대두박이기 때문이다.

흥어기에 식용유 소비가 늘어나던가, 식용유 소비가 감소될 시기에 성어기가 된다면 명실공히 수요 공급에 따른 상호 보완도 되겠지만 이는 인력으로 조절 해결하기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뿐이다.

마. 기타요인과 어분과의 관계

언제부터인지 어분 상품과 중, 하품간에 모한 함수관계를 지배하는 요인이 생겼다.

첫째, 강피류 사정이 좋아지면 어분 상품만을 구매하는 성향이 생기고, 강피류 사정이 악화되면 어분 중 하품만을 찾지 상품은 상품의 대접을 못받고 창고에서 체모에 손상이 가는 잠을 자고 있게 마련이다.

단백질 중에서도 가장 고급스럽다는 어분 입장에서는 보잘것없는 곡식의 껍질에 의하여 상, 중, 하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니 통탄을 금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한국적인 현실이다. 언제까지일런지 모르나 슬프고 괴로운 심사일량 애이불비(哀而不悲)할 궁지로 감쌀 수 밖에 없다.

둘째, 조희분 함량에 따라 어분의 선택이 달

라진다.

오랫동안 조회분이 높으면 구매자의 트집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동일수준의 단백질에 조회분이 많으면 환영을 받는단다. 그 조회분은 다른아닌 어류의 뼈로 칼슘과 인의 함량이 많기 때문이란단다. 한테 이제까지 인과 칼슘값이 계산이 되어 어분값이 형성된 일 없이 조 단백질 수준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구매자의 일방적인 지혜일 따름으로 뽕도 따고 임도 보는 격이다.

옛날에 알렉산더대왕이 이스라엘의 갔을 때의 일이다.

어느 유대인이 금은 보화가 탐나서 왔느냐고 물었으나, “나는 금은 보화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건 탐내지 않고 다만 너희들의 습관과 정의(正義)를 알고 싶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알렉산더대왕이 이스라엘에 머물러 있는 동안 어느 두 사람이 녀마를 사고 팔았는데 그 녀마속에서 많은 돈이 나왔다. 녀마를 산 사나이가 판 사나이에게 “나는 녀마를 산 것이 돈까지 산것은 아니니 이 돈은 마땅히 당신 것이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녀마를 판 사나이는 “당치 않은 말씀이오. 나는 당신에게 그 녀마덩이 전체를 판것이니 그 속에 있는 것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하고 말했다.

이에 이스라엘의 현인(라비)는 다음과 같이 판결을 내렸다. “한사람에게는 딸이 있고, 또 한사람에게는 아들이 있소. 그러니 그들을 결혼시킨 다음 그 돈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이치에 맞겠소” 그 라비는 나중에 알렉산더대왕에게 대왕의 나라에서는 그런 경우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 가고 묻자 알렉산더대왕은 “우리나라에서는 두 사나이를 죽이고 돈을 내가 갖는다. 그것이 나의 정의(正義)다”라고 대답했다.

대 책

병이 있으면 약이 있다고 했다.

약을 쓰기 전 환부의 진단에 대하여 의사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

단백질사료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 관계에서 수요의 공급이란 물량(物量)적인 문제보다 경영적인 측면에서 구매방법의 변동도 경시할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대두박의 경우 식용유를 생산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대두를 도입하고, 어분의 경우 일부 원양어업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연근해어업에 의한 국내 부존자원을 이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단미사료 중 유일한 국산임을 감안할 때 첫째, 어분에 대한 사용 수준(배합사료 생산량에 대한 사용 비율)의 일정화가 이루어져야겠다.

당해년도 사료 수급계획에 따라 어분의 사용량을 감안, 적절한 생산체제가 구축되어 안정적인 생산 공급을 할 수 있다.

둘째, 어분에 대한 수매 제도가 확립되어야겠다.

원료 수매 자금 지원으로 특히 성어기중 일시에 다획되는 어종(정어리)의 경우 집중적으로 수매자금을 적기에 방출('81년 경우 농안기금 19억원이 지원되었음)하여 어분공장으로 하여금 전량 인수토록 하며

셋째, 어분에 대한 비축 제도가 있어야겠다.

도입 대두의 가격에 따라 대두박과 어분의 대체 사용이 빈번하여 어분 사용량이 줄어들 경우 재고 압박을 당하여 값싸게 수출하는 현상이 초래되는가 하면 대두박 가격이 오르면 어분의 수요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일시적인 품귀 현상을 빚게 됨을 기화로 어분 도입을 하게 되는 모순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모순 발생을 없애기 위하여 성어기는 물론, 어분의 수요량이 줄어들 경우 체화된 어분을 수매 비축하여 흉어기는 물론, 대두박의 가격 폭등 및 공급 부족시 방출하여 수요 공급의 안정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